

정통 토크쇼, 정말 안 되는 건가요?

<박중훈 쇼, 대한민국 일요일 밤> 폐지가 우리에게 남긴 것

김아람

0. 변해버린 그것, 토크쇼

“신정환이 그룹 에픽하이에 압력을 넣어 경쟁관계에 있는 이하늘의 업소 출연을 막았다” - 임창정, 2008년 10월 12일 MBC <명랑히어로>에서

“‘다모’에 출연한 K씨가 나에게 끈질기게 구애했다” - 김세아, 2009년 2월 14일 KBS2 <삼페인>에서

2009년 현재 대한민국 예능 프로그램의 키워드는 단연 ‘리얼(real)’과 ‘자극’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근 1년간 공중파 3사에서 인기리에 방영된 <삼페인>(KBS2), <야심만만2: 예능선수촌>(SBS), <명랑히어로>(MBC)와 같은 토크쇼들은 여느 분야보다 더 ‘독한’ 수위를 자랑한다. 출연자들이 가장 쉽게 대중의 관심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이제 스타가 되기 위해 굳이 드라마에 출연해 체력소모전을 벌이거나, 리얼 버라이어티

에 출연해 ‘개고생’할 필요가 없다. 그저 주위에서 전해들은 재밌는 이야기를 재구성하거나, 그것도 안 되면 화제가 될 만한 폭탄 발언을 준비해 완벽하게 터뜨리기만 하면 된다. 스타가 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토크쇼는 이제 말을 하는 곳이 아니다. 토크쇼는 ‘스타양성소’다.

2000년대 초반에 방송되었던 <서세원 쇼 토크박스> 이후, 시청자들의 머릿속엔 ‘토크쇼=다수의 출연자가 서로 경쟁하듯 이야기를 쏟아내는 전쟁터’라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었다. 진행자가 주제를 주면 출연자들은 그와 관련된 신변잡기나 연애담을 늘어놓는다. 당연히 웃긴, 이른바 ‘대박을 친’ 출연자의 이야기는 방송 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다. 방송을 미처 보지 못한 시청자들도 포털사이트의 메인 화면만 확인해도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다. 더러는 이야기가 반복되기도 한다. 토크쇼에서 ‘먹히는’ 출연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청자들은 이제 ‘연예인 누가 누구와 사귀었는지’, ‘연예인 누가 언제 첫 키스를 했는지’ 관심이 없어도 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시청자는 서서히 질린다.

사실 <서세원 쇼 토크박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토크쇼는 지금의 집단출연체제를 의미하지 않았다. <자니윤 쇼>(KBS2, 1989), <이홍렬 쇼>(SBS, 1996), <이승연의 세이세이세이>(SBS, 1998), <김혜수 플러스 유>(SBS, 2000)가 말해주듯, 토크쇼란 말 그대로 진행자가 한 명의 출연자를 초대해 그의 삶을 조명하거나 삶의 철학을 듣는 대화의 장이었다. 다소 편차는 있었지만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행자와 벽을 허물고 진솔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때마다 시청자들은 그에 대해 좀 더 알아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브라운관을 통해 출연자와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지금의 집단 토크쇼가 그들만의 경쟁을 벌이는 것과 분명한 대조를 이룬다.

2008년 10월, <박중훈 쇼, 대한민국 일요일 밤>(KBS, 2008년 12월 14일~2009년 4월 19일, <이하 박중훈 쇼>)이 처음 기획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반가움이 먼저 든 까닭도 여기에 있다. <김혜수 플러스 유> 이후 거의 10년 만에 ‘정통 토크쇼’를 표방한데다—중간에 잠시 방영됐던 <더 스타 쇼>(SBS, 2008)는 논외로 하겠다—진행자 역시 평소 연예계의 마당발이자 입담꾼으로 잘 알려진 영화배우 박중훈이었기 때문이다. 그간 안정적인 시청률을 보장하는 각종 집단 토크쇼만을 쏟아냈던 KBS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시도였다. 이 글은 이렇듯 KBS가 야심차게 기획했으나 시청자들의 외면으로 4개월 만에 폐지할 수밖에 없었던 정통 토크쇼, <박중훈 쇼>를 평가하고 그 한계로 지목된 사안들에 대해 다시금 되짚어보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는 순으로 진행할 것이다.

1. <박중훈 쇼>의 출현

기획 당시 <박중훈 쇼>가 주목을 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서두에서도 밝혔듯, 10년 만에 찾아온 ‘정통 토크쇼’의 부활이었기 때문이다. <박중훈 쇼>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를 시사 이벤트를 통해 이슈화·담론화 하는 고품격 시사토크쇼, 만나고픈 사람들과 함께 눈물과 웃음을 나누는 감동토크쇼”라는 말로 프로그램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내세웠다. 이는 어느덧 ‘재밌는 이야기 경시대회’처럼 획일화되어버린 현재의 집단 토크쇼를 향한 경고의 의미이자, ‘토크가’ 아닌 ‘오락’이 주가 되어버린 ‘토크쇼’를 다시 되돌려놓겠다는 의지가 담긴 표현이었다. 제작진의 의지는 시청자에게도 그대로 전해졌다. 그간 연예인들의 첫 키스의 추억과 인맥자랑에 신물이 났던 시청자들은 <박중훈 쇼> 편성 소식을 듣자마자 열광했다.

시청자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미디어들은 방송도 되기 전에 기사를 쏟아냈고 시청자의 기대치는 극에 달했다. <박중훈 쇼>는 어느덧 하나의 프로그램을 넘어, ‘정통 토크쇼’라는 장르를 대표하게 된 것이다.

‘박중훈’이라는 이름이 갖는 가치(Name value)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이유였다. 박중훈은 20년이 넘는 연예활동 기간 동안 이렇다 할 스캔들 한번 없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만큼 자기관리에 철저하며, 프로정신이 강한 사람이다. 게다가 성격 또한 다정다감하고 유머러스하다고 알려져 왔다. 그가 다른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할 때마다 진행자는 그의 유머에 웃어 넘어갔고, 시청률은 대박이 났다. <박중훈 쇼>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중절모에 우산을 들고 미소를 머금은 신사의 이미지가 딱 ‘그 자신’이었던 것이다. 이는 방송초기 출연을 예고한 동료 연예인들의 명단만 봐도 알 수 있었다. <무릎팍 도사>(MBC)에서 강호동이 그토록 사정사정해도 얼굴 한 번 안 비추던 장동건은 <박중훈 쇼> 첫 회에 버젓이 등장했다. 정우성·김태희 등으로 이어진 출연자 앞에는 마치 공식처럼 ‘몇 년 만에 첫 출연’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 박중훈은 자신만큼이나 이름난 배우들을 섭외할 수 있는 대한민국 유일한 진행자였다.

방송을 앞두고 펼쳐졌던 대대적인 홍보 역시 시청자들을 끌어당겼다. <서세원 쇼>가 토크쇼 판도를 바꾼 이후 이렇다 할 무리수를 두지 않고 있던 KBS로서는 당연히 <박중훈 쇼>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었다. 잊힌 동요들을 되새겨보고자 탄생한 <해피투게더>와 서로의 언어를 알아감으로써 세대 간의 격차를 좁혀보려 했던 <상상플러스>는 시즌이 거듭될수록 사실상 일반 토크쇼와 별반 다를 바 없어졌고, 이 외에도 <삼페인>, <미녀들의 수다>와 같이 ‘예능=출연자의 신변잡기에 의존하는 프로그램’이 되어버린 KBS의 입장에서는 <박중훈 쇼>를 계기로 그동안 꺾인 점수를

만회해보려 했던 의도가 강했다. 박중훈 쇼가 토크쇼인데도 예능이 아닌 교양에 위치 선점을 한 것도 이 때문이라 풀이된다. 그만큼 KBS로선 절실했고, <박중훈 쇼>는 시작부터 막중한 임무를 떠안았다.

2. 그들은 시청자를 모른다

10년 만에 찾아온 전통 토크쇼라는 타이틀, 박중훈이라는 진행자의 저명성, 방송사 전체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박중훈 쇼>는 방송 4달 만에 전격 폐지됐다. <박중훈 쇼>의 폐지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통 토크쇼는 통할 수 없다고 단정 짓고, 전통 토크쇼라는 장르 자체의 폐기처분을 운운한다. 하지만 여기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방송사에서는 새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성공 가능성을 진단하는 몇 가지 기준을 정하고 있다. 첫째,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제작자가 기획했는가? 둘째, 성공한 경험이 있는 MC가 참여하고 있는가? 셋째, 현재 유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포맷을 가지고 있는가? 넷째, 목표 시청자층은 어느 계층인가? 이다. 아쉽게도 <박중훈 쇼>에는 프로그램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는 기획자도, 성공한 경험이 있는 MC도 없었고, 목표 시청자층도 분명하지 않았다. 장르 자체만을 운운할 문제가 아니란 얘기다. 결국 프로그램 전반에 흐르던 경고음들을 다시 들어본다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지적할 점은 애매한 위치 선정이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온종일 예능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시청자들은 이제 자신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데만큼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스타의 눈물 나는 가정사를 알려거든 아침방송을, 스타의 사생활을 알려거든 집단 토크쇼를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런데도 <박중훈 쇼>는 이도 저도 아닌 ‘유명한 연예인이 출연한다는 사실’ 하나만을 가지고 밤 12시에 편성하는 모험을 벌였다. 당초 제작진이 내세웠던 출연자와 진행자 박중훈과의 친분은 녹화분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그저 예의상의 칭찬과 꺾도는 이야기들뿐이었다. “출연해 주어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을 한 뒤 장동건에게는 “잘생겼다”는 말만, 김태희에게는 “예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연예계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진심어린 충고를 해준다든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들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전한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없었다. 자신이 무엇을 내세워야 하는지를 모르는 채 그저 섭외 그 자체에만 공을 들인 것이다.

가장 답답한 부분은 제작진이 아직도 이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프로그램을 기획 총괄했던 이영돈 KBS 기획제작국장은 폐지 관련 인터뷰에서 “화자의 의도까지 가끔 왜곡하는 ‘자막 장난’과 극단적으로 과장 변형되는 집단 MC 토크, 화려한 VCR 등을 배제한 정통 토크쇼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통할 것으로 봤지만 결국 잘 먹히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박중훈 역시 “초대 손님들의 눈을 보고 그 사람의 진심을 느끼려고 할 때 자막이나 효과음이 방해를 한다는 게 나와 제작진의 소신이었다”며 자신들의 의도를 몰라주었던 시청자에게 서운함을 표현했다(《조선일보》, 2009년 4월 18일자). 그러나 이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무엇을 놓쳤는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발언이다. 리모콘 한 번만 누르면 바로 특수효과들로 점철된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시청자가 단순히 CG와 자막, VCR이 없다고 ‘좋은 콘텐츠’를 마다했을 리 없다. 문제는 콘텐츠였지 부수적인 효과들이 아니었던 얘기다.

실제로 프로그램을 보는 내내 박중훈 씨가 그의 말대로 출연자들과 진심을 얼마나 나누었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 대신, 그와 제작진이

그토록 경계했던 ‘사생활 캐묻기’에 초점을 맞춘 부분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첫 회 출연자였던 ‘장동건’의 경우, 박중훈이 장동건에게 설 새 없이 이상형에 대해 캐묻는 장면이 20분가량 방송되었다. 이는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라고 묻는 대신 “어떻게 생긴 눈을 좋아합니까?”, “코는요?”, “입은요?”라고 물었던 결과였고, 이에 장동건의 표정 역시 어두워졌다. 결국 그날 시청자는 10여 년 만에 예능에 출연한다는 장동건의 진심어린 말 한마디를 더 듣는 대신, ‘궁금하지도 않은’ 그의 자세한 이상형을 알아본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 이는 장동건보다 비교적 안티가 많은 ‘이준기’가 <무릎팍 도사>(MBC)에 출연해 자신의 고생담을 이야기하고, ‘건설한 청년 이미지’로 거듭났던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현대의 트렌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도 문제다. 프로그램 장르 얘기가 아니다. 전체적인 분위기 말이다. <박중훈 쇼>는 1990년대의 정통 토크쇼의 포맷뿐 아니라 그 시절의 세트도 그대로 차용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선택이었다. 기본적으로 포맷은 현재의 ‘독설 트렌드’ 속에서 충족되지 않는 시청자들의 잠재된 요구를 어느 정도 해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세트는 그렇지 않다. 1990년대처럼 출연자가 어떤 얘거나 해도 ‘먹히는’ 시대라면 세트 역시 그대로 차용하는 데 별로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은 다르다. 집단 토크쇼에서 아침방송까지 모두가 ‘토크’를 활용하는 이때에, 정통 토크쇼를 표방한 <박중훈 쇼>가 그들과 똑같이 탁 트인 공간에 출연자 한 명을 앉혀놓고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얘기는 뻔할 수밖에 없다. 출연자 입장에서는 간판만 다를 뿐 모두 다 같은 공간으로 느껴지기 때문이다. 결국 60분이라는 시간동안 한 사람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는 출연자에게 ‘둘만의 공간에 있다’는 편안함을 주는 세트를 마련했어야 했다. 그래야만 출연자 역시 진행자에게 마음을 열고 10년 전 그들의 모습이

그랬던 것처럼 서서히 진행자와 동화되어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박중훈 쇼>의 실패는 단순히 ‘장르의 특성’ 때문이 아닌, 장르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했던 제작진 및 진행자의 착오가 상당 부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3. 나는 희망한다

거듭 이야기한 것처럼 <박중훈 쇼>의 실패는 한 사람의 인생관과 삶의 철학을 대화로 풀어보는 ‘정통 토크쇼’의 실패로 좁혀서 볼 문제가 아니다. <박중훈 쇼>의 실패를 거울삼아 더 발전된 형태의 정통 토크쇼를 만든다면 분명 승산이 있단 얘기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tvN에서 방영 중인 <현장 토크쇼 택시>(이하 <택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택시>는 2007년 9월에 시작해 현재까지 약 90회 정도를 진행한 케이블 계의 ‘장수 토크쇼’다. 일반적으로 시청자들이 <택시>를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택시>라는 특수한 환경이 가진 힘이다. <택시>는 기본적으로 진행자 이영자와 김창렬(현재는 공형진)은 앞좌석에, 출연자는 뒷좌석에 앉아 같은 방향을 보고 진행된다. 일반인들이 지친 하루를 끝내고 등 받침대에 몸을 기댄 채 기사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듯, 대부분의 출연자들은 하루의 스케줄을 끝내고 택시에 탑승한다. 진행자가 자신을 지켜보지 않으니 무방비상태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택시’라는 공간 속에서 출연자는 방송보다는 일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힘을 더하는 건 ‘힘을 뺀’ 진행자들이다. 특히 이영자는 출연자가 본인보다 나이가 적든 많든 늘 살갑게 대한다. 모두가 언니이고, 동생이다.

당연히 출연자도 그녀 앞에선 무장해제가 된다. 놀라운 점은, 그녀 본인도 꾸밈이 없다는 점이다. 단짝 친구였던 고(故) 최진실 씨를 보낸 뒤 그녀는 언제나처럼 택시에 탑승해 출연자 김C가 들려주는 「청춘」이라는 노래에 맞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해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미안하다”란 김C의 말도, 그의 위로를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녀의 모습도 시청자에게 감동으로 다가갔다. 방송이 끝난 뒤 프로그램에 대한 호평이 줄을 이었던 건 당연한 일이었다.

<택시>가 장수할 수 있는 마지막 이유는 60분 또는 30분을 지루하지 않게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잘 짜인 코너들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 갑자기 준비해놓은 차트(chart)를 뜯거나 자료화면을 보여주는 대신, <택시>에는 그 나름의 ‘맥 잇기용’ 코너들이 있다. 이는 늦은 시간(밤 12시) 인데도 시청자들을 끌어 모으는 힘이자, 출연자가 좀 더 진솔하게 대화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기도 하다. 특히 케이블 특유의 재기발랄함을 적극 활용해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출연자 관련 질문들을 물어보고 거기에 리플을 달게 한다거나, 출연자를 잠시 다른 차량에 이동시킨 뒤 일반인을 태워 평소 시청자들이 해당 출연자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래 들어보게 하는 등의 코너는 보는 시청자도 함께 ‘동승’한 느낌을 준다. 비록 브라운관으로 떨어져 있지만 ‘택시’라는 매개체를 통해 시청자와 출연자를 소통시켜 주는 것이다. 이것이 2009년 현재 <택시>가 ‘정통 토크쇼’를 표방하면서도 무사고 운전을 해나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공중파의 정통 토크쇼들도 변해야 한다.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시청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시청자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진 스스로도 ‘정통 토크쇼는 안 된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좀 더 잘 만들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박중훈 쇼>가 폐지된 이후, 진행되던 <고현정 쇼>도 잠잠해지고 있다. 팬스레 마음이 쓸쓸해진다. 공중파 3사가 <박중훈 쇼>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좋은 정통 토크쇼 제작 소식이 전해지길 바란다. 속단과 편견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

일반부문 우수작 | 정통 토크쇼, 정말 안 되는 건가요?



일반부문 우수작